1998. 9. 15 창간

춘천 성시

vol.195

2
2015



특집 분단 70년 남북한이 함께 꿈꾸는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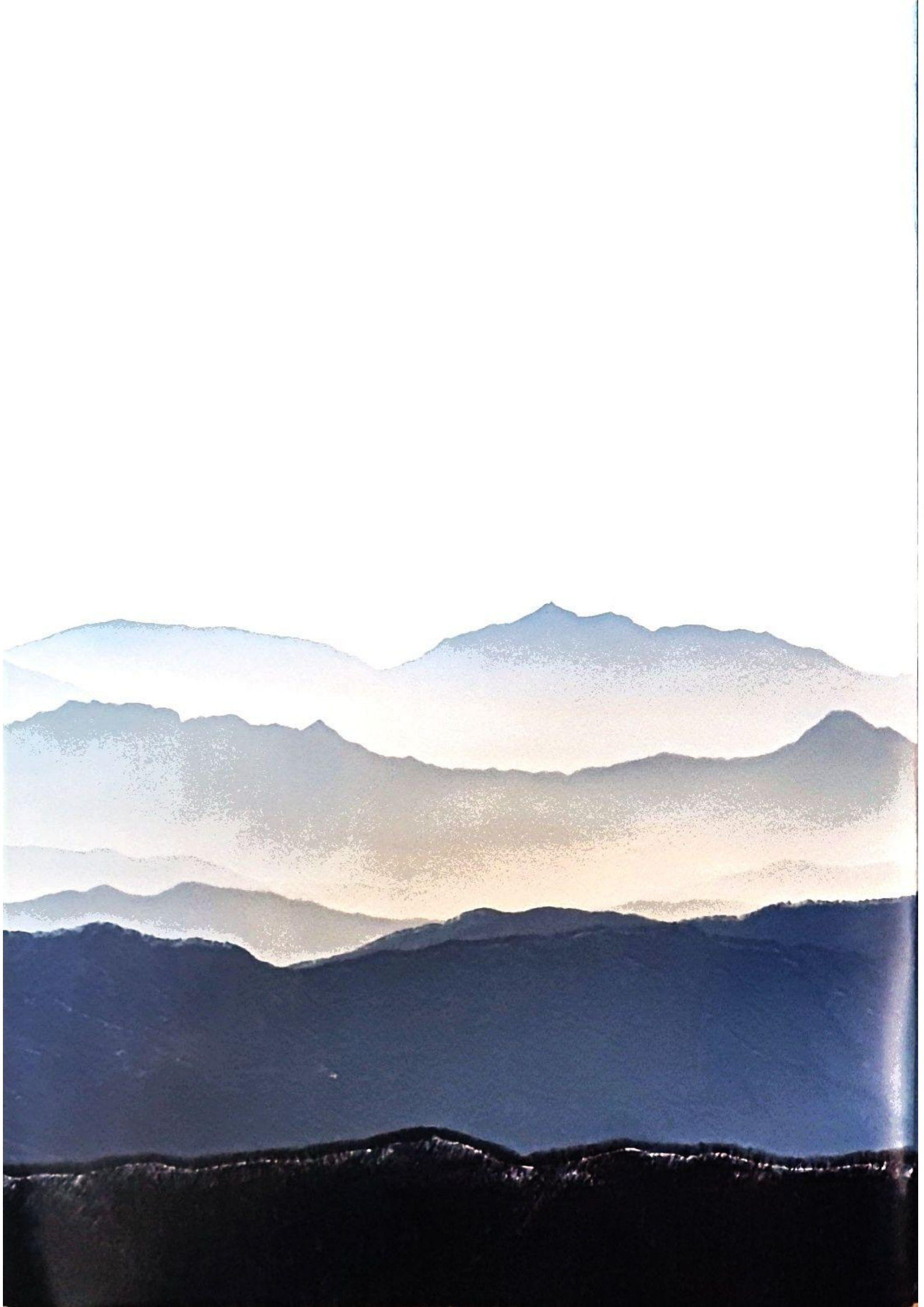
선교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

다음세대 이단동아리

기획 회복적 정의

영화이야기 인카운터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지금...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

최창일 [월드비전 강원지부장]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는 "국제시장"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흥남부두에서 한 가족이 손을 놓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한국의 시대적 상황들을 가족의 사랑과 기다림으로 풀어낸 영화 '국제시장'과 강원도 횡성의 실제 인물이셨던 노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순수하게 담아낸 독립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처음부터 자막이 올라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흥행을 이룬 이 두 영화는 가족의 사랑과 공감이라는 단어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내용 중에 가족을 기다리며 찾는 끈끈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소홀히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가족도 잘 챙기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우리가 가족이라도 잘 챙긴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가난한 이웃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오해하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지할 뿐 아니라 숙명론적이며 내일을 위한 계획이나 노력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존경받는 개발전문가인 로버트 챔버스는 이런 주장들이 타당치 않음을 밝히면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데 있어 좀 더 겸손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속에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던 고통의 멍에를 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요긴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 효자1동 373-90
033.254.7244

Contents

Feb 2015 vol.195

Editor Letter 003

칼럼 004







※ 표지사진 재능기부 : 학곡리 사진관

007 **캘린더** Feb 2015

008 **COVER인물** 박민수 박사

012 **사설** 인권은 바르게 진화되고 있는가?

014 **특집1** 분단 70년 남북한이 함께 꿈꾸는 통일

017 **시** 완전

018 **특집2** 통일시대의 통일언어를 준비한다

021 **만평/예향**

022 **선교** 아르헨티나

024 **다음세대** 신입생들을 잡기위해 분주한 이단동아리

027 **기획** 회복적 정의

030 **인물2** 최철순 권사

034 **교회탐방** 산천무지개교회

037 **예수안에서본 예술**

038 **설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

040 **책이야기** 명작의 탄생

042 **영화이야기 92** 인카운터

044 **예수의 미소 54** 대한늬우스시절 육해공 먹을거리

046 **좌충우돌건강이야기** 대사증후군이란

048 **알려드려요**

049 **음악이야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050 **1월 이야기**

056 **후원자**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2015 2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 이달의 기도제목 」

♥ 교회가 피묻은 십자가와 사망권세를 이긴 부활 복음의 본질의 회복하게 하소서.

♥ 지역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성령안에서 융합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2 [ESF] ~4일 목자학교 & 느헤미아학교 (천안고려신학대학원)	3 제직훈련세미나 오전 9시40분, 안디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오후 7시, 동부교회
8 신년집회 ~11일 춘천석사감리교회	9 [ESF] ~12일 제주도 [쥬빌리] 38차 기도회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10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15 동성애 바로 알자! 집회 오후 3시, 온누리교회	16	17
22	23 [ESF] ~27일 새학기준비모임 & 창세기워크샵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24 [CCC] ~27일 순장수련회 ccc회관

서리라 "　　시편 32:8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 2시	**5** 아파트전도세미나 오전 10시, 순복음열린교회	**6**	**7**
11	**12** [기드온 춘천캠프] 조찬기도회 매주 오전 7시	**13** [기드온 협회] 본부탐방 12시	**14**
18	**19** 설날	**20**	**21**
25 [성시분과] 오전 7시, 조찬모임	**26**	**27**	**28**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박민수뇌경영연구소〉 박민수 박사를 만나다

춘천교육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박민수뇌경영연구소〉 소장이며 순복음춘천교회 장로이신 박민수 시인을 사무실 겸 자택인 강변코아루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소양강이 저 멀리까지 훤히 내려다보이고 맞은 편에 우뚝 선 눈 덮힌 봉의산이 그야말로 한 폭의 수채화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박민수뇌경영연구소〉를 자택으로 옮기셨는데, 이전 사무실도 전망이 좋았지만 이곳 전망은 정말 좋습니다. 사무실을 자택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으실 거 같은데요?

〈박민수뇌경영연구소〉를 개설한 후 여기에서 4년 간 뇌를 경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삶의 성공적 방법과 성경에 대한 강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아주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대부분 완성되어, 강의보다는 집필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활동이 없어져 굳이 연구소를 독립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새롭게 집필할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제가 새로이 집필하고 있는 책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뇌(brain)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뇌는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정보로 살아가도록 조건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뇌가 후천적으로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사람들이 만든 지식과는 달리 최고최선으로 인간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담긴 성경 속의 많은 지식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의 실용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 주고자 집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인, 시를 초월하다」라는 아주 특별한 제목의 시집도 내셨지요? 어떤 시집인지요?

예, 제가 아주 특별한 시집을 낸 바 있습니다. 30편의 시와 111편의 사진을 9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의 시나 사진 내용은 다 '빛'으로 통일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로 창조하신 빛을 소재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언어의 시를 쓰기도 하고, 그 빛을 창조적으로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화, 의미화를 기도하는 신개념의 예술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하

나님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드셨듯이, 나도 새로운 개념의 창조적 예술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언어로 쓰는 시와 빛으로 형상화한 사진을 모두 새로운 의미화의 예술품이 되도록 시도한 것이어서 기존의 시를 초월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능력으로 무한 가치를 새롭게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뇌 경영이군요?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이런 활동만 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동용 시장께서 새로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청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게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장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청을 어디에 신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매우 민감한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동용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현 부지를 선택한 사실을 전제로,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면밀한 타당성 분석과 토론 과정을 거쳐 현 부지에 시청을 새로 짓는 것이 춘천 100년 미래를 위해 가장 합당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들이 많은 실질적 정보들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 모든 사실들이 공개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큰 갈등 유발 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품 활동과 집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춘천 성시화를 위해서도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물결, 빛을 품다

네 안에 잠든 빛을 깨우라

빛은 말씀이다
빛은 진리이다
빛은 사랑이다
빛은 희망이다

세상에 빛이 사라질 때를 생각해 보라
빛이 없는 세상은 죽음이다
태초에 빛을 지으신 이가 있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살기를 명하셨으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거역함에
그가 마침내 빛을 잃었으니

세상에 말씀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에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에 사랑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에 희망의 빛이 사라졌느니

온 세상의 어두움이여 고통이여 죽음이여
이것을 네가 아느냐
네가 너를 깨달으라
네 안에 잠든 빛의 말씀을 깨달으라
진리의 빛을 깨달으라 사랑을 깨달으라
희망을 깨달으라

박민수 (시인, 시를 초월하다)
포토 포엠! 시와 사진의 창조적 융합

인권은 바르게 진화되고 있는가?

인권이란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비록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지만 남자의 부속물이나 보조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등하고 완벽하게 자유자이며 온전한 인격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독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를 도와 행복을 이끌어 가게 하셨다. 그리고 두 이성의 만남과 친밀감을 가진 교제는 하나됨을 통해 마음과 육체를 공유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낳게 하여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자녀를 통한 기쁨과 애정을 쏟게 하고 자녀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 붓게 하셨다. 이것이 긴 인간의 역사이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 가정은 소중하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소중하다. 여기는 계급이 없으며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구성원 모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생명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존중받아야 하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굳이 인권선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세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는 인격과 영을 파괴하고 지성과 감정, 의지는 일그러져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죄는 모순과 갈등,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사회는 점점 더 엉클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는 권력이 남용되고 사유화되어 지배 피지배 계급이 형성되고 경제는 분배가 아닌 돈의 권력으로 치달아 가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공산혁명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문화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첨예한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상대주의는 작은 것 소수자라 할지라도 다 인정하여야 하는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이런 사회의 혼란

과 분열은 결국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인권 혁명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위키백과사전의 분석대로 인권, 곧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뿌리는 멀리 고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권은 200여년전 근대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한 것이다. 중세의 봉건체제에서 자유가 억압되고 노예화된 삶으로부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는 가히 혁명을 불러일으킬만하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혁명이념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국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으로 뿌리를 내리더니, 1968년엔 68인권혁명으로 강자와 남성중심의 힘의 사회로부터 여성과 학생, 아이, 소수자, 이주민 등을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시켰고 이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되었다. 이제는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 보수주의자나 전통에 사로잡힌 구세대사람으로 치부되는 세상이다. 다음에 일어날 인권운동은 4차 혁명 즉 세계동포주의와, 자연과 인간의 평등을 기초로 한 생태주의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인권운동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말해 수십 명을 살해하고도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에 의해 짓밟힌 수십 명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는 또 다른 인권의 피해가 아니겠는가? 수천 년 이어온 가정의 뿌리인 남녀의 결혼과 성이 정상임을 가르쳐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항문섹스를 학교 교실에서 정상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더 큰 가족의 파괴와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겠는가? 동성애자를 인정해 줌으로서 그들도 결혼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면 목사가 주례를 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자유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배움과 훈련을 위해서 절제력을 배워야 하는 학생에게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조례는 또 다른 상대인 교사의 인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 시점에 말이다. 이러한 때에 혈세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므로 극복하고 말고, 회복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배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안목이 아니더라도 인권은 바르게 진화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 / 박인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광염교회 담임목사)

분단 70년 남북한이

연세대 북한연구원 최재덕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가슴 치며 통곡해야 했던 일들을 가슴에 묻고 넘지 못할 벽이 있음을 절감해야 했지만 다시금 잘 해보자고, 모두 함께 잘 지내보자고 다짐했다. 새해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남북한 정상의 신년사이다. 올해로 남북이 분단 된지 70년이 된다. 남북관계가 5.24 조치 이후 모두 단절되고 소통의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이 두 정상의 신년사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고 하면서 이것이 조선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라 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 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고 하여 자주통일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대원칙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난 12월 29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한 화답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기조의 신년사를 듣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이다. 김정은 체제는 출범 이후 정치적 숙청과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정치적으로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려는 듯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당권 강화를 위해 젊은 나이를 뛰어넘어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슷한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듯 보인다. 신년사를 발표한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신년사 이후 북한매체들의 대남비방이 중단되었으며, 연일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강조하는 글들이 발표하고 있다.

함께 꾸는 통일의 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등 끊임없이 통일을 강조하였으면서도 실효성이 없었다.

그 이유는 대화와 소통의 단절이었다. 통일의 꿈은 남북한이 함께 꾸어야 하고, 그 방법은 점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대화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화를 이어나갈 때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 양측이 서로에게 내세우는 전제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후에 대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북한 모두 대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곧 남북회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남북회담으로 그 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경제활동들이 재개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2015년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70년이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고 노인이 된 세월이다. 바꿔 말하면, 남북 분단이 된 때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픔을 겪은 세대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 해도 남아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남북한의 가장 큰 이슈는 이산가족 문제이다. 한민족 한핏줄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고, 관계가 악화될 때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경색되고 민심과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까지 좌지우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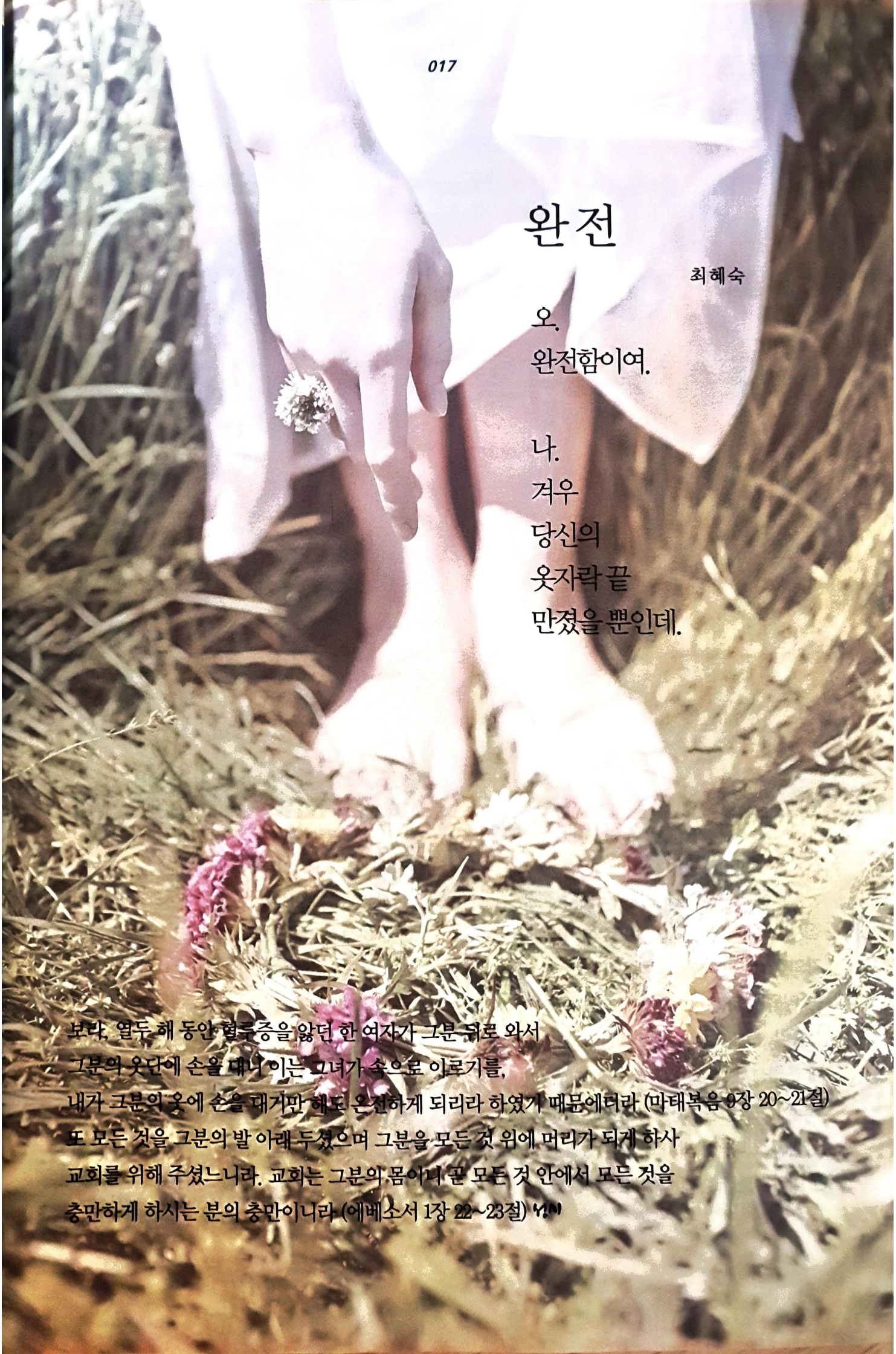
신년사를 통한 남북한 대화와 소통의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 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세워지길 바란다. 이 길만이 침체일로에 있는 남북한이 상생경제를

이루어나가는 길이다. 많은 경제협력이 이루어질수록 많은 연결고리가 생기고,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직접 대화의 창구를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남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계하여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남북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북한 경의선을 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여 유럽여행을 하는 일이 지금은 꿈같은 얘기 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옛날에 꿈같았던 일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이 많듯이,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여행이 가능하게 될 날도 있으리라 믿는다. 거꾸로 유럽 사람들도 철도 여행만으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진정한 한 국가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에게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음 세대는 남의 자식이 아니다. 나의 아들과 딸이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낳을 나의 손자, 손녀들이다. 그들에게 분단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려주어야 할 것은 통일 의지이며, 통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이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희망이 있는, 밝은 미래다. 지금이 꺾이지 않는 남북한의 통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때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한걸음 더 가까이 통일에 다가서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남북한이 함께 꾸는 통일의 꿈!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활력이 넘치는 일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남북한이 함께 꾸는 통일의 꿈에 나의 미래를 그려 넣어보자.



완전

최혜숙

오.
완전함이여.

나.
겨우
당신의
옷자락 끝
만졌을 뿐인데.

보라,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마태복음 9장 20~21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23절) ㅋ.ㅋ



통일 시대의 통일언어를 준비한다

김효진 박사
강원대 강사. 국문학 전공. 집사

김효진 박사(강원대 강사. 국문학 전공. 집사)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강의를 이끌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20대 시절부터 남편 신승일 집사(더드림 직업재활원장)와 함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설을 도왔으며, 교회에서는 어린이사역과 문학, 문서사역을 돕고 있다. 김 박사의 의미 있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자.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 북녘 동포들과 통일사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오래전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삭 목사님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려주는 글이었고,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가 있

다는 사실이, 그 나라가 내 동포의 나라라는 사실이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젊은 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저는 생활에 밀리거나 쫓기면서 북한 선교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가끔 나도 한 때는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었지 하는 추억팔이로만 북한 선교를 되짚어 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봄날, 교회에 허문영 박사님(평화한국 대표)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광고를 봤을 때도 또 옛날을 추억할 수 있겠군 하는 생각만 하였지 별로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선교는 저에게 너무 먼 추억 저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문영 박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아, 나도 한 때 북한 선교에 꿈을 가지고 있었지 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과 간절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같은 믿음의 동역자인 학교 선배 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언니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춘천에 정착하기 위해 오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역 하나센터에서 '의사소통과 표준어 사용' 이라는 제목으로 그분들에게 강의를 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후 선배의 추천으로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 길을 아주 빨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춘천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을 도우면서 더 깊은 북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시는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스스로 북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동포이며 곧 하나가 될 민족이라는 생각도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를 만나러 가는 첫날, 제가 얼마나 추상적이며 가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간 제가 받은 통일 교육과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의 매체 영향 때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선교라는 것이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부딪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으로 오신 그분들이 저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감사가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의사소통과 표준어 사용



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특히 탈북자들은 남과 북의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와 한국어의 억양 때문에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는 2시간의 강의로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에 여러 가지 사투리가 있듯이 그리고 그 사투리를 우리들은 모두 친근하게 느끼며 사투리 때문에 상대방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듯이, 북한식 발음이나 억양 역시 넓은 의미로는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으니 말할 때 먼저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새터민들을 도우시면서 느꼈던 감사한 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만난 새터민 분들은 많은 고생 끝에 꿈에 그리던 남한에서 정착하게 되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그분들이 경험하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새터민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또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이 사회에 적응하고 일을 찾아서 남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나는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보내는 한 시간 한 시간도 나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의 시작이 바로 이 같은 마음에 있다고 믿는 김효진 박사. 오늘도 김 박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다해 새터민들을 도우며 통일의 그날을 정성껏 시중들고 있는 것이다.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필요의 대상일 뿐입니다.
물질에 대한 바벨탑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 / 이관형 기자

예향

마지막 승자

국민 개그맨 유재석씨가 있다. 20살에 데뷔, 10년 이상 무명 생활을 했다고 한다.
열심히 뛰었지만 무명신세였다. 자기보다 재능 있고, 더 웃기는 개그맨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7-8년이 지나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은 영화나 사업 등 다른 쪽으로 전업을 했고, 반대로 자기 같은 무명의 친구들은 자포자기해서 그 무렵 개그맨을 포기했다. 그러나 유재석씨는 끝까지 버텼다. 그러다 메뚜기 탈을 쓰고 얼굴이 반만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누구보다 성공한 개그맨 유재석씨. 이어지는 일화도 있다. 한 후배 개그맨이 하도 무명생활이 서러워 개그맨을 막 그만드려는 찰나 유재석씨를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 유재석씨가 격려하면서 자기 경험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 "힘내라. 개그 잘하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야. 날 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남는거야." 맞는 말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다.

글 / 최상도 기자



아르헨티나에서..

권오묵 선교사

할렐루야!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춘천은 제 영혼의 고향입니다.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복음화에 꿈을 품고 캠퍼스를 뛰어다니며 교회개척도 했던 곳입니다. 춘천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르헨티나로 떠난 지 어언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현지인 교회개척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교회를 배우며 현지상황에 맞는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지인 목사님들을 제자훈련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런 신학교육과 목회 훈련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위해 목회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귀납법적 성경연구, 강해설교, 이야기설교, 제자훈련, 셀그룹 운영 등 목회에 꼭 필요한 훈련을 합니다. 매 달 집에서 성경 한 권을 공부하고 그 박 3일 합숙훈련 때 공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설교 작성 연습도 합니다. 지금까지 백 여명의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지금까지 훈련 받은 모든 목사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또 한 번은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과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아닌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오픈했습니다. 성경학교는 모바일 스쿨(이동식 학교) 입니다. 30명의 학생을 모으면 성경교사를 보내 매주 2시간 성경을 가르칩니다. 매년 600명 이상이 성경 한 권 이상을 공부합니다. 또한 토요일에나 공휴일에 하루 종일 성경 한 권을 공부하는 말씀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남미 대륙의 개신교는 90% 이상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씀의 뿌리가 약합니다. 뜨거운 열정에 말씀의 깊이가 더해진다면 남미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구마전도와 메이스전도를 접목하여 전도학교도 실시합니다. 이미 하나의 모델 교회를 만들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훈련 사역을 시행합니다. 고구마전도는 간편하고 쉬워 남미 교회에 적합한 전도방법입니다. 정식훈련은 매주 2시간 12주 실시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실습위주의 훈련을 주말에 하고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2년간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에 신학대학원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서 2년간 공부하면서 학교의 철학과 운영방법을 배워 아르헨티나에 돌아가 그곳 상황에 맞는 신학대학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1월에서 6월까지 한국선교훈련원(GMTC)에서 안식년 선교사 재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목적은 20년의 선교사역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 선교사훈련원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대학원 건립과 선교사훈련원을 비롯한 세계선교에 필요한 기관들을 만들기 위해 현지인 교계지도자들, 한인교회들과 연합하여 "씨 뿌리는 자들"(Red de Sembradores)이라는 목회자 네트워을 만들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남미교회를 위한 세계선교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운동가들은 향 후 10년 뒤 남미교회와 중국교회가 세계선교의 바통을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로부터 넘겨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최근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이 한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남미교회는 세계선교 차기 주자입니다. 남미교회가 세계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결코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 안식년을 잘 보내고 아르헨티나에 돌아가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세계선교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신입생들을 잡기 위해 분주한 이단동아리

김지한 목사
(춘천이단사이비상담소장)

입학시즌을 맞아 각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단체들의 포교활동이 활기를 띄고 있어 크리스천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재학생들은 이단단체들과 그들의 포교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만 신입생들의 경우는 이단단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그들의 포교 방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여 경계가 요청된다. 더욱이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될 때여서 이단단체의 포교 대상 1순위에 꼽히고 있다. 한 단체의 경우 신학기에는 동아리 멤버들의 약 70%가 신입생들로 구성된다고 할 정도다.

· 이단단체의 신입생 유인법

이단단체들이 신입생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된다. 하나는 종교적인 색채를 감추고 스포츠나 사회봉사 혹은 해외여행 같은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어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단단체들은 익히 알려진 자신들의 단체명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신입생들의 신상을 알아내기 위한 각종 설문조사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자신들을 '성경공부 모임'이라든지 'QT모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신입생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끈질기게 접근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은 동아리에 가입하기 전에 교회의 대학부 담당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하고 대학 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설문조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캠퍼스 이단단체들

신천지 교회

신입생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단체는 신천지교회다. 신천지교회(총회장 이만희 씨)는 교주 이만희 씨를 '보혜사', '이긴자' 라고 주장하는 단체다. 이들은 '성경바로알기모임', '기독교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 등 수십 가지 명칭을 유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천지측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다음 그곳에 기재된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점을 마련한다. 그렇게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후 접촉해서 식사 대접 등을 하며 '성경공부를 하자', 'Q.T.를 나누자' 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통일교

월드카프(W-CARP; World Collegiate Association for the Research of Principles), 월드카프는 통일교(설립자 문선명, 사망)가 '원리연구회' 가 전신으로 1966년부터 '전국대학원리연구회' (CARP)로 개명해 활동하다 1984년부터는 국제조직 월드카프(W-CARP)로 변경했다. 2000년 이후 문선명 씨의 7남 문형진 씨(46)가 세계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원리연구회' 라는 한글이름 대신 '월드카프' 라는 영어독음을 단체명으로 강력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드카프 한국회장은 유경득 씨다.

박옥수 구원파

국제청소년연합(IYF;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IYF(설립자 박옥수, 회장 박문택)는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주장하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들로부터 '구원파'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씨)의 청소년 전담 교육, 선교기관이다. 주로 IYF세계대회와 IYF중고대학생영어말하기대회, IYF명사초청강연회, IYF세계문화체험박람회, IYF사진전시회 등과 같은 방법으로 캠퍼스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엔 GNC(GOOD NEWS CORPS)라는 'IYF해외봉사단' 을 조직하고 국제행사에 외국인 청소년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JMS

CGM(Christian Gospel Mission)

JMS(설립자 정명석 씨)는 전통적으로 응원, 댄스, 연기, 스포츠 분야의 동아리를 많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동아리에 가입할 때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동아리 모임을 '교회'나 '성경공부'와 연결시키면 일단 JMS이단으로 의심해야 한다.

다락방

DCM(Department of College Ministry)

DCM은 류광수 씨의 다락방전도운동(전도총회)의 대학선교기구다. 199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대학 지교회로 모이는 곳은 지역별로 서울 53개, 경기 27개, 강원 10개, 충청 26개, 호남 17개, 대구경주 18개, 경남 8개, 부산 22개 곳이다. DCM이외에 다락방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펜넌트'이다.

안식교

ACT(Adventist Collegians with Ti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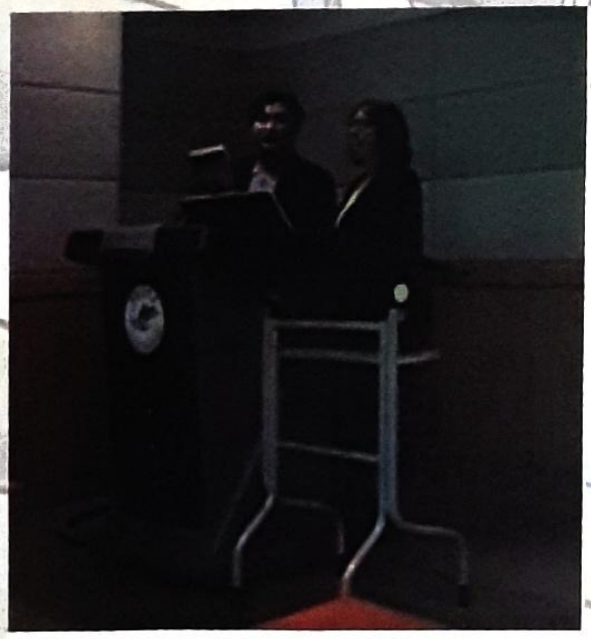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재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안식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단체다. 이들은 주로 삼육(지육, 체육, 덕육), SDA(Seventh Day Adventi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ACT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선교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선교단체를 소개합니다.
CCC(대학생선교회), 예수전도단, JDM(예수제자운동), IVF(기독학생회), DFC(제자들선교회), ESF(기독대학인회) GBT(성경번역선교회), SFC(학생신앙운동), 인터콥등이 있습니다.

※ 이단상담전화 : 033-256-1260 / 010-5244-1009 (김지한목사)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지난 2015년 1월 11일 주일 오후, 춘천의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는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는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디딤돌일까요?" 30여 년간의 현장 전문가로서의 연륜이 배어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푸른 눈의 강사는 첫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놓인 문제를 걸림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을 때 문제는 해결되고 상황은 나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말한 강사는 미국 펜실베니아 랭커스터 지역 피해자-가해자 프로그램의 대표 로레인 수트츠만 암스투츠(Lorrain Stutzman Amstutz)이었다. 로레인은 MCC(Mennonite Central Commitee) 범죄와 정의부서 담당자로 1984년부터 피해자-가해자 분야에서 여러 단체와 지역 공동체에 피해자-가해자 조정, 당사자 대화모임 등과 회복적 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문해 온 전문가이며, 국제 피해자-가해자조정협회(VOMA)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KAP).



세미나는 한국평화교육 훈련원(KOPI)이 주관하고, 한림대 고령사회교육센터와 한국 아나뱁티스트센터(KAC)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되었는데, 학계 연구자들, 경찰청 관계자들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경찰, 상담교사, 학부모 등 약 45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이 땅의 청소년들을 향한 열정으로 세미나실은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로레인은 강압과 처벌에 의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에서 나온 가해자와 피해자가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의 연결성을 강

화시키는 방법을 찾기를, 계속 긍정적 관계형성의 길을 모색하기를,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일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이어서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이재영 원장은 현재 한국의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남양주 시교육청을 필두로 부천 등 경기도권의 여러 학교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을 소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작은 움직임이지만, 학교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희망적인 소식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경찰청의 청소년계 백두용 경정은 여러 경찰관이 청소년들과 회복적 학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1년간 100건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소개하였고 끝으로 8년간 청소년계를 담당하였던 김광영 학교경찰은 6년간 응보적인 처벌 위주의 사법을 집행하다가 백두용경정의 소개로 2년 전부터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서, 본인의 삶의 태도가 바뀐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른 아침부터 속초에서 영을 넘어서 달려오는 열의를 보여 주어 여러 참석자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여러 사례들은 회복적 정의가 이상적인 좋은 패러다임임을 동의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다.

이 날 발표된 여러 이론과 사례는 학생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되어 있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로 등장하면서 정부를 비롯하여 교육계에서 앞 다투어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의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정부는 더욱 강력한 처벌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의 뿌리에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보적 정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피해를 또 다른 피해로써 되갚으려는 이런 관점은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효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학교폭력(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학교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고 경찰을 파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학교와 학부모, 지역공동체가 함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에 기회로 삼고 좀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란, 그동안 가해자에게 가해에 상응하는 공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이루려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둔 패러다임(응보적 정의)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으로 초점을 바꾸는 개념이다. 즉, 가해자가 아무리 공정하게 처벌을 받아도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고스란히 피해자가 담당하여야 하고,

피해를 입기까지의 정황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가해자의 처벌에 피해자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 또한, 피해를 당한 장소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불안한 공간으로 여겨져 삶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간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기에 안전한 장(field)을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게 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상황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겐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맥락적인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줄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자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의 당사자들과 문제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주최자가 되어, 그들 스스로가 문제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만족스러워하고 가해자가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미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력 · 수용력과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발휘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문제를 당사자만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학급 공동체, 더 나아가 학교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여겨 공동체 멤버가 함께 회복하려는 의지를 모으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지역사회 모두의 정의가 이뤄지는 사회를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다.

현재, 강원도 경찰청에서는 지난해의 좋은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가해자 간의 대화 모임을 정례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역 공동체 회복에 관한 관심과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대화모임을 이끌어갈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 평화와 화해의 정신 즉 샬롬의 정신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중 하나이다. 회복적 정의 개념은 이런 샬롬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샬롬의 정신을 사회 속에서 이뤄내야 할 기독교인의 사명과도 맥이 닿는다. 단지 학교 현장 뿐 아니라 이 땅에는 갈등과 반목이 있는 많은 현장이 있다. 이런 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평화와 사람들 사이에 따스한 화해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글/ 이발희
(연세대 간호과 졸업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회복적 정의 강사 과정 수료)



최철순 권사님의 건강기부 센터를 찾아서

오랜만에 따사로운 햇볕에 눈이 녹아 내리던 겨울의 늦은 오후, 춘천 삼천동으로 몇 년 전 이전한 현대식 건물의 강원체육고등학교의 "건강기부센타" 를 찾았다. 줄을 지어 서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들 뒤에 서서 오늘 어떻게 최철순 선생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나 걱정을 하면서도 말이 아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사람들의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인사 후 치료의 손길을 멈추지 않던 선생님은 잠깐씩 시간이 나는 틈틈이 무심한 듯 던지시는 말들이 심상치 않게 들려온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사람의 몸은 이주 특별한데 그분의 만드셨던 원형대로 돌아가면 모든



치료가 손쉽게 이뤄진다. 원형대로 돌아가도록 기와 혈을 통하게만 하면 몸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온몸의 뼈가 잘못되면서 생기는 것인데, 어떤 병도 뼈를 통해 기가 통하고 혈이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는 심지어 전문 의사들이나 의사가 있는 식구들까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오신 한분 한분들을 큰 힘도 들이지 않는 것처럼 물 흐르듯 치료하시는 손길에서 오랜 경륜이 묻어나 보였다.

후에 이분이 쓰신 '천사의 정석' 이라는 책의 글을 살펴보니 처음으로 스포츠 맛사지 1급 자격을 우리나라의 저명한 전문가 송기택 박사를 통해 취득하신 후, 1996년 포천의 탁구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 유남규 김택수 이철승 오상은 등의 선수들과 생활을 하며 그들을 돌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3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처음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남자부 단체가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는데 동행하게 되었다.

국가 대표선수들과 국제적인 시합에 나가보면 세계최강을 달리던 중국선수들에게는 항상 안마 치료사가 있었는데 그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없던 때 힘들게 그들의 쓰던 것이 추나요법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최고 전문가로 일컫는 분들을 만나 그 기술을 전수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국의과 대학의 추나요법 전공 주지편교수의 특별 강의를 듣고 난 후 한국의 도립의료원과 같은 기능의 리요 안마병원의 제1안마 의사 선생님이셨던 남편되는 동택휘 선생을 통해 치료의 실제를 경험하는 귀한 기연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 오셔서 여러 증상의 많은 분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 동료의 부모님 중풍병과 류마치스 관절염 전신성 경화증 하지 정맥증 심지어 여드름 등 고생하시던 분들을 치료하며 경험을 쌓아가셨고 기회가 되는대로 이를 통해 태



백 강릉 인천등 전국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무료로 치료하시며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계신다.

최철순 권사님의 강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이는 머리를 세우지 못하다가 목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머리를 세우고 기어 다니다가 허리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직립으로 걸어 다니게 된다. 그러나 불량한 자세로 근육이 약해지면서 뼈가 제자리를 잃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나타납니다. 목 허리 디스크는 병이 아닙니다. 뼈가 제자리에서 약간 균형을 잃어 통증이 있을 뿐 뼈가 제자리로 찾아가면, 디스크 수액도 모두 제자리에 찾아 들어갑니다. 몸의 통증은 빨리 고쳐 달라는 신호입니다. 뼈가 제자리로 가면 통증도 사라집니다. 뼈의 경추는 7개로 머리 얼굴 목 어깨 팔 손가락에 영향을 주고 흉추는 12개로 주로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며 요추는 5개로 허리 엉덩이 다리 발에 영향을 줍니다.

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척추에 있습니다. 뇌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을 하며 뇌에서부터 31쌍의 신경망이 척추를 통해 뼈마디를 통하여 각 장부 팔 다리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장부에 있습니다. 오장육부는 음식물 산소 물을 받아 들여 심장에서 동맥을 통

해 전신으로 배달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의 이동입니다 혈의 움직임은 심장의 압력과 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신경망의 대부분이 신체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뼈가 제자리에 있도록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골반 뼈에서 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니 골수가 많이 생산되도록 운동을 통하여 뼈에 자극을 주고 신경망에 생체전기가 활성화 되도록 올바른 수면과 영양섭취가 중요하고 또 면역력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가능하면 약이나 주사, 수술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철순 선생님은 2014년도에 거의 6000명이상을 치료하였고, 올해만 해도 1월 현재 벌써 500명이상을 진료하며 치료하시되 언제나 무료로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다. 강릉의 소망감리교회를 출석하시며 교회의 권사로 열심을 다하는 최 권사님은 대전의 한 수련회에 참여 하던 중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게 되셨고, 이 말씀이 평생 좌우명이 됩니다. 어려서부터의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그때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생활을 이뤄가게 되는데 그 후 지금까지 기도와 헌신 속에 살게 하셨단다. 최 권사님은 아버지학교도 수료하신 후 8여 년간을 조장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실 정도로 주의 일에 깊은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신다.

대화를 나누던 중 부산에서 온 운동선수 학생과 고향인 속초에서 오신 분도 치료 하시면서, 이제 내년이면 학교에서 은퇴를 하게 되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기부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할 공간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는 작은 소망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이시는 선생님.

평온한 얼굴에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나 거저 나누시는 것이 달관되신 듯 무심한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있다. 복되고 상큼한 오후 부드러운 바람 속에 귀한 분을 뒤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운동장엔 미래의 꿈나무 운동선수들이 달리고 뛰고 던지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취재 / 조영춘
chun580@hanmail.net



하나님의 약속 「산천무지개」교회

춘천시 외곽 산천리, 하나님의 큰 섭리에 대한 응답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 산천무지개교회(춘천시 신북로 420-10, 담임 윤재선 목사)이다. 현재 한림성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기도 한 윤재선 목사가 최순희 사모 등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의미 있게 시작한 아름다운 교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는 산천무지개교회의 그 활력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윤목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라온 배경과 신앙 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의 고향은 벚꽃으로 유명한 경남 진해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진해의 고신측 장로교회인 진해동부교회 어린이교회학교와 청소년부를 출석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려울 때는 늘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진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큰 뜻을 품고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영등포 생활을 시작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두닦이까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내가 55세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되리라' 고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을 목회자의 길이 아닌 학자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처음 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춘천교육대학교에서였습니다. 그때 막 군 생활을 예비역 소령으로 마치고, 춘천교육대학교에서 군사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한림대 교수를 거쳐, 1989년에 한림성심대학교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최초의 「지방행정학과」 창설이었습니다. 저희 학과를 모델로 그 후에 충남, 충북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방행정학과」초대 학과장으로 섬긴 이후, 많은 인재들이 지방행정학 과정을 밟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으로 허천 국회의원과 여러 정재계 인사들, 가평군수 등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선교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방행정학에 있어서 연방제인 미국보다 일본이 더 참고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였습





니다. 그래서 1994년에 파견교수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내친 김에 정식 박사학위 과정을 새로 밟아 큐우슈우대학에서 외국인으로서 거의 최초의 공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일본 선교의 뜻을 품고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교토대학 법학부 초빙교수로, 최순희 사모는 오사카에 있는 한국학교인 건국고등학교 파견교사로 근무하면서 선교활동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사모의 건강악화로 일본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목회 활동보다 한국에서 일본선교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산천무지개교회 대예배실을 비롯해서 교육관, 게스트하우스 건축 등 많은 재정적 부분을 직접 헌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모저모로 도우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를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알고 보면 세상적인 야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아 과로로 몇 번을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귀국하여 생활할 때에 이유 없이 피를 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유명하다는 의사들의 진찰을 받았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폐암말기를 의심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현승종 국무총리 등을 수행하고 열리는 일본에서의 심포지엄 전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기도제목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주님의 종으로 목회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당시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폐디스토마' 를 찾게 되었고, 즉시 완치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이후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ACT)에서 공부하고 한국신학대학원협의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캠퍼스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 목회와 대학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길이든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천무지개교회가 창립된 것이 2010년부터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경과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2010년부터 춘천 신북읍 산천리에서 8평형 컨테이너에 모여, 가족과 지인들이 조촐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4천여 평의 부지에 차례로 예배당, 교육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건물의 구상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교회이름을 고민하던 중 사모의 투병생활과 중요한 인생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3차례 큰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약속과 소망의 무지개를 주님의 뜻으로 믿고, 산천무지개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초교파적인 목회로 공식적인 성도명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특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들, 정년퇴직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 전원생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역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라는 윤재선 목사와 최순희 사모.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과 산천무지개교회 위에 주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기대해 본다.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박신호(예술인 선교사) | 2010 | 석판화 | 25cm X 32cm

그들을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눅 5:11)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고기들을 얻었으나 더 귀한 것을 찾았기에 미련없이 버려두고
바쁘게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가지 유혹이 꽉찬 이 어지러운 세상에
서 내 인생의 일순위인 예수님의 뒤를 붙잡고 따라 가야만 할 것입니다. 박신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안창원목사 (우두감리교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

2월은 24절기 가운데 새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입춘이 두 번 들어 있는 쌍춘년(雙春年), 혹은 두 봄의 해라고 합니다. 이번 2015년 한 해 동안도 성도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며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1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눈(the eyes of the Lord)"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눈의 역할은 사물을 보는 첫 번째 신체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위에 항상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눈'은 단순히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첫째, 사랑의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its end.) 시작하는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은 관심의 눈입니다.

우리를 살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눈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의 사람이 있다하여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단번에 그 눈에 먼저 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춘천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It is a land the Lord Your God cares for.)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춘천이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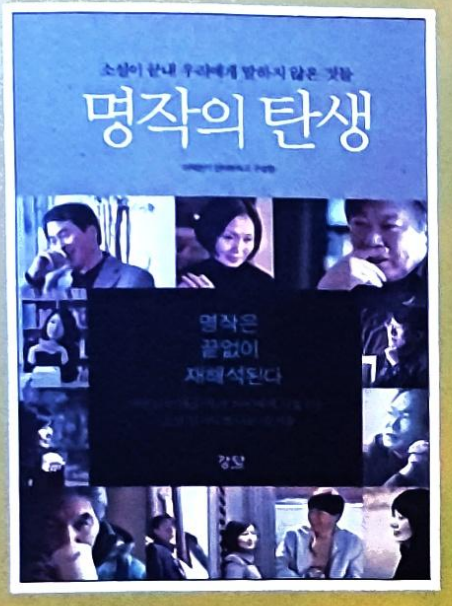
셋째, 하나님의 눈은 능력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처럼 많은 대상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백성이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밤으로 낮으로 그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변함없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되 추상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며 새해에 대해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2015년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광야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변함없이 공급되며, 반석에서는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서 우리의 갈한 심령에 해갈을 주실 뿐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샬롬



대한민국 文學史의 값진 기록물이 될 '명작의 탄생!'

이문열, 한승원, 박상우 ,박범신, 권지예, 성석제, 권여선, 정미경, 조경란, 김원일, 방현석, 강영숙, 조성기, 심상대, 정영문, 하성란, 이승우, 정이현 작가등 대한민국 대표 문학상 수상 작가 19인이 작품을 넘어, 글쓰기를 넘어, '문학과 나'를 이야기하다!

작가는 작품을 설명하지 않는다. 작가의 손을 떠난 텍스트는 독자의 품에서 작가의 의도대로 읽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한다. 꾹꾹 눌러두었던 작가의 생각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그것도 대한민국 현대소설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가 19인의 대표작품이다. 평론가와 독자 모두 이 작품들을 '명작'이라 부르는 데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여기에 소개된 작품들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현대사의 정신과 실상을 리얼하게 반영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작가에게는 삶 그 자체이겠지만, 독자에게는 당대의 추억이 오롯이 스며있는 기념비적인 문학 작품들이다. 이 책이 독자에게는 텍스트 읽기의 또 다른 즐거움이겠지만, 작가에게는 인터뷰를 넘어 작가가 미처 말하지 못한 나에 대한 고백록이기도 하다.

아직도 작가를 꿈꾸는 문학청년과 작가 지망생에게는 축복 같은 책!

소설가가 끝내 말 하지 않았던 소설 이야기를 통해 창작의 기운을 새롭게 채울 수 있어

이 책은 작가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리고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 쓰는 과정 속에 차마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가 끝없이 전개된다. 독자가 이미 작품을 읽었다 해도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텍스트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기억 저편에 있던 등장인물들은 보다 뚜렷한 얼굴로 다가설 것이고, 해체되었던 플롯은 견고한 구조로 텍스트 사이에 우뚝 서 있을 것이다. 작가의 삶과 작품은 대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작가의 고백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해독한 텍스트와 많은 간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작품 속에 숨어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는 즐거움과 작가와 일대일로 마주하고 있는 듯한 생동감 있는 대화 내용은 문학적 감수성과 창작 의욕을 새롭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표작가 19인이 창작의 전 과정을 이토록 분명하게 드러낸 책은 유일!

텍스트를 읽는 힘, 세상을 관조하며 창작하는 힘을 키울 수 있어 글쓰기를 고민하는 예비 작가들에게 이 책은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높고 아득하게만 느꼈던 작가들의 세계관,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비법이 오롯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쓰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이 책은 꽤 가치 있게 다가올 것이다.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작가가 쏟아놓는 고백록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명작'은 우리 모두가 세운 기념비다. 시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호흡한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하다. 작가가 나지막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깊게 이 책을 공감할 것이다. 세월은 흘렀다. 그러나 텍스트는 그때보다 더 또렷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깊고 아린 문신 하나를 새겨줄 것이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명작의 탄생-소설이 끝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
이재은이 인터뷰하고 구성함
분야 인문 ‖ 면수 370쪽 ‖ 판형 신국판
발행일 2015년 1월 5일 ‖ 정가 14,800원

인카운터
The Encounter



헐리우드가 만든 기독교 영화에 대한 기대의 실망으로 어느 정도 지친 상태가 되어 막막한 기분 속에 지내던 시간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음이 분명하다. 혹시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 눈에 들어오는 이 영화 〈인카운터〉..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 아니 영화제목이다. 그렇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크로스인카운터〉(Close Encounter)라는 영화가 그것이었다. '미지와의 조우' 라는 한글해석제목이 달린 포스터로 등장한 이 영화는 UFO(미확인비행물체)를 다룬 내용으로 유명했으며 〈E.T〉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것이기도 하다. 그 외 무슨 이상하고 저열한 호러영화로 〈그레이브 인카운터〉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독자분들은 이에 혼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카운터(The Encounter)는 조우(遭遇), 즉 '(새롭거나 뜻밖의 대상과 접하다)'라는 뜻인데 제목에서 암시되다 시피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인생의 변화를 겪는 수도 있는 상황을 묘사한 영화이다. 그러나 그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닌 매우 중요한 만남이고 거룩한 만남인 것이니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점에서 좀 어폐가 없지 않을 것인 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는 매우







축복된 시간과 자리는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야기는 미국의 어느 도로 상에서 한 소녀가 지나가는 차를 세워 동승을 요청하는 말하자면 히치하이킹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된다. 각기 나름의 사연과 목적으로 지나가는 두어 대의 차량을 보내고 세 번째에야 타게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밤 앞서 가던 차들은 사고현장으로 도로가 통제가 되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도로 중간에 'The Last Chance Dinner' (마지막 기회 식당)이란 간판의 카페 레스토랑이 있어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가 이상한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바로 JESUS라고 밝히며 그곳에 몰려 온 사람들의 주문메뉴와 취향은 물론 속내와 각기 처한 상황과 사연까지 꿰뚫어 맞추는 기이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당황하여 갈등을 겪고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케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줄거리의 복음전도용 영화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사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하는 묘한 힘이 있는 영화이며 실로 은혜로운 영화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 무어라 하실까...그리고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지나 않을까...

작년에 소개한 바 있는 〈갓즈낫데드〉(God's not dead)에서 데이빗 목사역으로 나온 데이빗 A.R. 화이트가 연출을 맡은 이 영화는 불행히도 좋은 화질의 영화가 아닌 유투브(Youtube) 동영상으로만 나와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그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유투브 앱에서 쉽게 찾아 저장해서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언젠가 DVD나 블루레이로 나와 제대로 된 영상으로 널리 배포되길 바랄 뿐이다.

글 / 김춘배 기자
b iler@hanmail.net

대한 늬우스 시절 욕해공 먹을 거리

영화 '국제시장' 이 드디어 천만을 넘겼다. 필자도 주인공 덕수보다 더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 관람을 하면서 당신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 낸 숨 가쁜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세대와 우리 자식세대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됨에 감사 도리며 눈물도 많이 흘렸다. 오늘은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시장바닥에서 꿀꿀이죽을 먹는 장면과 초콜릿을 받아먹은 장면을 보며 필자의 어릴 적 가정이 지지리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시대 즐겨 먹었던 음식(?)을 회상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글을 올려본다.

봄이면 국민학교 등교 길 가방 안에 매일 호미를 집어넣고 하교 길에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논 두렁이에 털썩 주저앉아 나생이(냉이)를 한 바가지씩 캐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그날은 어김없이 저녁밥상에 나물 향내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나물무침을 보면서 어린 맘에 나름 효자 노릇한 것 같아 가슴 한 편이 뿌듯했었다. 그리고 학용품 등은 부모님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 하루 반나절 산과 들판을 쏘다니며 삐라(북한선전물)를 20~30장 주워 파출소에 신고 주면 포상으로 주는 공책과 연필 학용품을 받아서 사용했다.

여름에는 학교 도시락 반찬으로 고추장만 잔뜩 준비한 후 등굣길에 상추며 고추, 깻잎, 쑥갓을 꺾고 심지어 디저트로는 수박과 참외를 서리하였다. 하교 길에는 강에서 물장구치며 달팽이(다슬기)를 잡고 도랑에선 피라미를 잡아 배를 딴 후 바위 위에 말려 훈제?로 먹었으며 가끔씩 국수채로 민물새우와 미꾸라지를 잡아 저녁밥상 국거리로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다.

가을날은 필자의 국민학교 뒤편에 엄청 넓은 뽕나무 밭이 마치 미로처럼 펼쳐져 있어 오디열매를 따먹다 수업시작 종소리도 듣지 못해 혼난 적도 많았고 그런 우리를 잡으러 온 선생님들을 피해 도망도 꽤 많이 다녔다. 그리고 시간이 틈나는 대로 최고의 영양간식인 메뚜기를 잡아서 소주대병에 넣어 튀겨 먹기도 했으며 가까운 강가 둑에는 그 비싼 자연산 장어가 엄청 들끓었지만 그때 당시엔 그걸 먹는지도 몰라서 쳐다보지도 않고 강 건너 장항리 땅콩 밭으로 기어들어가 비린내 나는 생땅콩을 캐어서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때론 가을 추수 이후 입주변이 새까맣게 되는 줄도 모르고 짚단에 불을 놓아 콩과 고구마를 구워먹었고 멀리 가을들판에 할아버지들이 똥개를 말 그대로 개 패듯이 패는 장면을... 한참 후에는 그 개가 짚불에 새카맣게 그을린 채 장대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는 며칠 내내 밤에 그 곳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앞만 보고 뛰어다녔다.

겨울철엔 꽝꽝 얼은 얼음으로 조각배를 만들어 서로 부딪히는 베틀을 하다가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짚단에 불을 피워놓고 옷을 말리다가 카시미론 소재의 상의 뒤편 등판과 바지만 고스라니 태운 적도 있었고 이후 배고프다며 얌전히 동면을 취하고 있는 개구리를 잡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거나 후라이판에 간장조림을 해서 먹다가 질리면 같이 잡은 미꾸라지와 함께 매운탕으로 끓여먹었다. 그러다가 민물고기 잡는 그물로 맥없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서 반상회 하고 있는 참새들을 향해 힘껏 그물을 던져 펼치면 재수 없는 참새는 잡히고 그 중 더 재수 없는 참새는 푸드득 날아가다가 양쪽 대나무 장대에 쳐진 거미줄 같은 그물에 걸려서 잡힌 놈을 툭툭 털을 뽑아서 참새머리통이 검게 반들반들 할 정도로 연탄불에다 구워서 막 소금에 찍어 먹은 적도 있었다. 스케일이 큰 형아들은 째째한 참새가 아닌 산토끼와 잡꿩을 잡아서 볶음탕을, 토끼털은 전화기 받침, 꿩의 깃털은 끝에 펜을 꽂아 멋스럽게 사용도 하고 또 꿩 깃털 삶은 물이 치질에 좋다 하여 필요한 이웃 어르신 분들에게 드렸다. (농협 비료창고 지붕에 비둘기도 많았지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 하여 잡아먹질 않았다./ 하지만 겨울철 간식, 아니 온 사계절을 통해 제일 맛있는 군것질 거리는 바로 성탄절에 나눠주던 사탕과 초콜릿과 과자였다. 그날은 모든 종교를 떠나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 같이 우물쭈물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른 뒤 성탄선물인 간식거리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논둑 길에서 계속 야금야금 간식을 먹다가 갑작스런 너무 단맛에 취해서인지 목이 칼칼하고 배가 아파서 변소에 뛰어가 앉아 있어도 성탄절이 매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산과 들과 강을 누비며 뛰어 놀다가 어느새 해가 저물면 밥 먹고 가라는 이웃들의 밥 인심도 좋았던 그 시절이다. 요즘은 주변에 온통 먹을 것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넘쳐나는 음식이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쓰는 인심은 참 강파르다. 어릴 적 추억의 먹거리가 영화 '몬도가네'처럼 엽기적인 먹을 거리가 아니냐고 어린 세대들은 말하겠지만 그 시절 그때는 아무 영문도 모른 체 그렇게 지냈고(다행히? 뱀은 안 잡아먹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옛날 내가 먹은 음식이 요즘은 먹기 어려운 음식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필자의 혀끝에 생생하며 이와 같은 음식재료를 좀 더 세련되게 티 안 나게 조리하면 누구나 다 잘 먹은 특별한 건강식이 되질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영화 '국제시장' 처럼 '달란트시장' 이란 영화제목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희생한 영화를 다룬다면 어떨까? 기독교인들만 관람하는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 일제치하부터 6.25 동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역사하심을 일반 대중들에게 크게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metabolicsyndrome

대사 증후군 이란?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보통 1~2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고지혈증 혈당이상 고혈압의심 대사증후군 등의 결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중 비교적 흔한 대사증후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내당능 장애(당뇨의 전 단계, 공복 혈당이 100mg/dL 보다 높은 상태,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에 의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dyslipidemia) 심혈관계의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대사증후군의 특징은 발생부위가 특정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발생한다.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insulin resistance)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사 증후군의 발병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인슐린 저항이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하여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더욱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환경 및 유전적인 요인이 모두 관여하여 발생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같이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유전적인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사증후군의 증상은 대개 무증상이지만 대사 증후군의 각 구성 요소에 따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고혈당이 심할 경우 당뇨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대사 증후군과 동반된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의 일종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으로 정의한다.

1) 중심비만(central obesity):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102cm 초과, 여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88cm 초과 (한국인 및 동양인인 경우 남자 허리둘레 90, 여자 80 이상)

2)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

3)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이 낮을 경우: 남자의 경우 40mg/dL 미만, 여

자의 경우 50mg/dL 미만 4) 공복혈당 100mg/dL 이상

5)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3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mmHg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증가할 수 있다. 당뇨병이 없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평균 1.5~3배 정도 높다.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3~5배 가까이 증가한다. 그 외에도 지방간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사증후군의 치료 현재로서는 대사 증후군을 만족스럽게 치료하는 단일 치료법은 없고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 치료를 해야 한다. 또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의 예방 건강한 식이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사증후군의 유발 원인 중에서 교정이 가능한 요인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식이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대사 증후군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통곡식 식이섬유 등의 섭취를 늘리도록 한다. 건강한 식이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다양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와 신선한 과일, 콩 등의 섭취를 늘리도록 한다. 섬유소는 글루코스의 흡수를 늦추고 소화속도를 조절해 주어서 포만감을 가져다주고 비정상적인 식욕을 없에 줄 수 있고(폭식 거식증 등에 유용함)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줌으로써 죽상경화증 심장질환 등을 예방해주고,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어 변비나 과민성대장증후군 대장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현미나 통밀 등의 통곡식을 먹어야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가공된 탄수화물인 흰쌀, 흰밀가루 식품(빵, 파스타 베이글, 케이크 토스트), 시판되는 과일주스 등을 너무 자주 먹기 때문에 섬유소, 피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하여서 대사증후군 암 등을 포함한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된다. 천연의 껍질이 제거된 탄수화물(흰밀가루 흰쌀 설탕류 등)은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한 진정한 식품이 아니다. 섬유소와 미네랄이 제거된 이런 식품들은 우리 몸에서 너무 빨리 흡수되어서 급격한 고혈당을 일으키고 췌장에서는 이것에 맞추어서 빨리 인슐린을 핏속으로 내보내고 과도한 체지방도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요구한다. 즉 인슐린저항(insulin resistance)이 생겨서 늘어난 인슐린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체지방으로 바꾸는 것을 더욱 촉진하고, 결국 체중(체지방, 특히 복부지방)이 증가하고 체중증가는 다시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글 / 정형만 원장 (참사랑내과)

알려드려요

춘천홀리클럽

1.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2.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장소 : 후평2동 796-11번지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주소 : cafe.daum.net/ccjmm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011-361-1995

한마음 조기탁구회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회비 : 월4만원
010-3375-4323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장소 : 춘천은혜교회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010-2492-4316 회장
010-6378-2261 지휘자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화요모임 헌신자 모집

대상 : 현대무용 워십찬양율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20분
장소 : 우두동 벧엘교회 2층 주일학교 예배강당
010-9495-1029 한혜영 집사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장소 : 나눔교회
010-5521-3779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019-9138-4452, 033-251-4452

탁구대 무료기증 받습니다

예수제자교회 010-3771-0834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033-261-5652 입원상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070-4383-4720, 010-7567-5012

영성회복 축복 성회

일시 : 3월 23일~25일
낮 11시, 밤 7시30분
강사 : 이윤구목사(강북명성교회담임)
장소 : 오순절기도원(춘천시북산면상추곡1길33)
010.8263.0190(차량이용및 문의전화)

춘천동부교회 음악교육부 1학기 신청안내

개강 : 3.12(목) ~ 6. 4(목) 각 과정 12주 수업
과정 : 첼로, 플룻, 바이올린, 우크렐레, 피아노, 오르간, 기타, 드럼, 신디, 성가독창, 성가합창
임창호 부장 010-2737-7111 / 장동훈 부감 010-6375-8874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 1756-1791)의 클라리넷 협주곡 A 장조 K622 <KLARINETTENKONZERT IN A DUR.KV622>, 제2악장 아다지오 <ADAGIO>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마 음악사에 나오는 그 어떤 천재의 이야기보다도 모차르트 음악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만약 그가 35세의 일기로 요절하지 않았다면 더욱 수많은 일화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 감성에 대한 질투를 표현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의 살리에르와 같이 표현되었던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하여 질투의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어디 한 둘 이었겠습니까?

그가 14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 때 바티칸의 시스틴 예배당에서 단 한번 들었던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를 정확하게 사보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다섯 살부터 간단한 작곡을 시작했다는 말과 함께 그의 천재성은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의 교회 부악장 겸 궁정전속 작곡가였던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오페라, 교향곡,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특히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클라리넷 같은 협주곡까지도… 성가곡들과 마지막 그의 리퀘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쓰였고,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음악 속에 그의 곡들이 늘 포함되어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곡도 제2악장이 오래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영화에서 OST로 쓰였습니다. 너무 섬세하게 감성을 잘 표현해서 아프리카의 석양과 함께 비행하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특히 추천할 만한 음반은 자비네 마이어〈SABINE MEYER〉라는 독일 여성 클라리넷 연주로 베를린 필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녀는 23살에 유명한 지휘자 카라얀의 추천으로 입단했다가 단원들과의 마찰로 그만두게 되자, 오히려 그 후에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더욱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한 겨울 눈 내리는 봄내의 야트막한 언덕을 바라보며, 잠시 커피 한잔의 여유와 함께 듣는 모차르트는 과연 천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해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분을 위해 값지게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천리에서 드리는 다니의 음악이야기, 2015년 두번 째였습니다. 샬롬! 다니

글 / 김금찬 선교사

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2015년도 기독교연합회 주관 신년교례회가 1월 6일(화) 오전 11시 춘천중앙성결교회(유동선목사)에서 있었다. 김종익목사(춘천교역자연합회장, 수석부회장, 광명장로교회)의 사회로 강철주장로(장로연합회 수석부회장, 창대감리교회)의 기도, 지용찬목사(기독교연합회장, 은혜장로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말씀선포와 박인관목사(직전회장), 장춘근목사님(직전총무)께 감사패를 정학수장로와 김화자권사에게 공로패, 지난 홀부모자녀돕기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예스컴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지고 중앙성결교회 유동선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오의석목사(총무, 순복음조은교회)의 기관 소개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성시 매거진 편집위원 신년MT



춘천성시 매거진 편집위원 신년 MT를 1월6일(화)~7일(수) 속초 영랑호리조트에서 가졌다. 편집위원 이관형권사(자연유치원 원장)의 섬김이 있었고, 쉼과 의미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제37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1월 12일(월) 오후 7시15분에 제37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있었다. 통일을 기대하는 중보기도자 110여분이 모였는데, JL클럽(강수인목사)의 찬양인도와 홍요셉목사(사랑의 침례교회)의 사회로 임운식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 만나선교회 이영호장로께서 "먹이고 치료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병철목사의 인도로 뜨거운 기도시간을 가졌고, 김수복목사(거성교회) 축도로 마무리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영호장로는 미국에 거주하며 북한의료사역을 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 전세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신앙 안에서 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38차 2월 모임은 2월 9일(월) 저녁7시15분에 있고, 강사는 탈북자 사역을 하고 계신 강화나오미집 박상희전도사이다.

춘천교도소아버지학교 (춘천아버지학교 48기) 개강

재소자대상으로 일년에 1번 개최되는 춘천성 9기 춘천교도소아버지학교(한택수 춘천지부 교도소팀장)가 1월 24일(토) 춘천교도소에서 4주간과정으로 개강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55명의 재소자들이 참가했는데, 30여명의 섬김이들이 토요일마다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다. 춘천교도소아버지학교는 최소경비는 본부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섬김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섬기고 있다. 재소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많은 중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이디온선교회 1일 세미나

1월 22일(목) 오전9시부터 오후5시반까지 주일학교 교육에 앞장서 온 파이디온 선교회(양승헌목사)가 주최한 크리스천 티칭 1일 세미나가 온누리교회(김창환목사)에서 있었다. 쇠퇴하는 교회 교육의 본질과 비전을 회복시킬 10만 크리스천 교사 양성 운동으로 열린 1일 세미나였다.

통일광장기도회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1월 26일(월)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있었다. 올해



분단 70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통일한국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선포하며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홀리클럽 제78회 정기 기도회가 27일(화) 06시 40분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있었다. 제1부



예배는 임운식장로(수석부회장)의 사회, 김종렬 장로(부회장)의 대표기도, 박상호목사(제일장로교회)의 "독소가 제거되는 기적"(왕하 4:38~41)으로 설교, 홀리회원의 색소폰 연주, 석광훈 장로(사무국장)의 광고 후, 홀리찬가를 부른 후 박상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황병호 회장의 사회로 합심 기도회, 제3부 2015년도 홀리클럽의 운영계획 보고, 예산안 통과, 임원 조직 및 영역별 위원회 보고, 회원 주소록 검토 등으로 회의를 마쳤다.

2015 Abba Bible School
산골짜기 바이블 스쿨

학생모집

산골짜기 바이블 스쿨은

소수 정예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한 아둘람 특공대 훈련이다.(삼상22장)
이 위기의 시대에 최선의 해답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경적인 교회되기이다.
밖으로 향했던 비판의 칼을 안으로 수술 칼 삼아 나부터 새 사람 되어 작은 누룩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작은 자들이 연합하여 삶의 자리 전 세계에 퍼져 새 대안 사회와 하나님 나라로 부풀리고 맛을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의 아둘람, 무공해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하려 한다.

산골짜기 바이블 스쿨 커리큘럼

개인 및 공동체 영성,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리더십, 교회론, 공동체 스터디, 국내외 공동체와 수도원 탐방.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신약성서의 작은 누룩 교회(Five Families Fellowship, 3F Chrtch)
개척을 목표로 기도, 학문, 노동, 공동생활(3개월)하며 훈련한다.

산골짜기 바이블 스쿨 입학 학생 자격

작은 가족 교회 번식에 관심 있는 세례 받은 남녀신자와 통일 후 신약에 나타난 초대 교회(공동체 style) 모델로
북한교회를 재건하기 소원하는 자로서 학력제한은 없으며, 수업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특히 척박한 환경에서 훈련 받을 각오 된 자.

3월, 9월 (매년 2회)

http://cafe.daum.ne/AbbaShalomKoinonia

아바공동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갈목길 51-4)

033.441.7312 / 010.9155.5998 이윤식 목사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2015학년
신입생 모집안내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 2015년 2월 25일(수)까지

문의처 : 033-257-2740 / 010-3342-4812
FAX. 033-241-2741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우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편 입	2년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건강한 성, 거룩한 성

동성애 바로알자 집회!

일시 2월 15일(주) 오후3시

장소 춘천온누리교회 (김창환목사시무)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춘천기독교연합회

www.agapemusic.org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영성과 실력을 겸기한 교회음악인의 산실

기독교음악통신대학(과정)은

1974년 한국교회음악의 선구자 중 한 분이신 고 김두완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 36년 동안 1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교회음악 교육기관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세우신 학교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교회음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음악의 목적은

★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위해 성경적 교회음악에관한 정체성을 갖도록 훈련시킨다.
★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력하게 한다.
★ 한국교회에 바른 예배음악을 제시하는 교회음악인으로 훈련시킨다.
★ 교회음악의 시대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음악문화를 확산시키는 선견자적 교회음악인으로 훈련시킨다.



기독교음악예술원
기독교음악통신대학 춘천분교

학생모집요강

과 정	학 과	모집학년	지원자격
기독교음악통신대학과정 (2년 4학기)	교회음악과	1학년	교회 음악인으로 훈련 받기를 원하는 자
초급 과정	전문적으로 입문하기 위해 기초부터 배우기 원하시는 분(수시접수)		
연구 과정	음악을 전공한 분으로 전공이외의 교회음악사역에 좀 더 헌신하고자 하는 분(수시접수)		

전공과목 소개

기독교음악통신대학(과정)은 영성과 음악적 능력을 갖춘 교회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해 각 전공별로 최고의 강사진이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개인 레슨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지휘전공 / 작곡전공 / 성악전공 / 오르간전공 / 피아노전공 / 실용음악전공

교육방법

1. 온라인을 통한 통신교육
   매학기 7과목을 수강하며 학교에서 발간한 교재를 이용 공부한 후 학기당 7회의 답안지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보낸다.
2. 전공실기
   매주 1회 전공실기 지도교수와 만나 개인 또는 그룹 레슨을 받는다.
3. 출강 수업
   본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수업으로 학기 중 매월 1회 각 분교 강의실에 출석하여 강의를 듣는다. 출강수업은 학생들에게 배부한 교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이론과 교회음악 이론이 강의 되어진다.
4. 등교 수강
   매학기 방학기간 중 전국의 학생들이 세미나 형식으로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수업을 받는다.

원서접수방법

접수기간 : 2월 (1학기), 8월 (2학기)
상담문의 : 010-2737-7111, 033) 242-7110
수업장소 : 춘천분교사무실 (춘천시효자동700-10 2층-교대부속초옆)

Fellowship for Inheritance to Muslim



FIM 이슬람선교학교

일 시 **2015. 3. 17 – 5. 26** (매주 화요일)
시 간 pm 7:00 – 9:00
장 소 춘천사랑의교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146-3 / T. 033-241-8017)
접 수 전화로 등록을 받습니다. (1599-5591, www.fim.or.kr)
대 상 이슬람선교 관심자, 목회자, 평신도
훈련비 15만원 우리은행 1005-201-283743 (FIM 국제선교회)

강의계획

1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2 이슬람과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3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4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5 이슬람과 여성
6 예수와 무함마드 비교연구
7 유럽의 이슬람
8 꾸란과 성령
9 한국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 수료식

강사진



유해석 목사
총신대학교
영국웨일즈대학교 신학부
現 FIM선교회 대표
저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외 다수



이동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독일 튀빙겐 대학교 신학박사
現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저서 "현대선교신학"외 다수



소윤정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철학박사
現 SIM선교회 자문위원
現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저서 "꾸란과 성령"외 다수



차경준 연구원
칼빈대학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FIM선교회 이슬람연구원



FIM국제선교회 춘천지부
이슬람선교학교장 윤대영 목사
(춘천사랑의교회 담임)

춘천사랑의교회 오시는 길



FIM 국제선교회는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21길 28 TEL. : 1599-5591 홈페이지 : www.fim.or.kr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후원자 안내

"여러분이 성시화운동의 기수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 후원에 동참하는 단체 및 개인을 소개합니다.

개인

강현숙 고순덕 곽해옥 권세희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경아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정미 김정진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윤덕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석지찬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옥자 심경하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중계 안현주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홍금 오홍수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뇌연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임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옥희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조정화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경자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예은 최옥순 최종대 탁광희 표복순 하명수 한영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재국 황호석

교회

갈릴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바나바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감리교회 열린순복음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은혜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기업

거두주유소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춘천YWCA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033)-256-1260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교회사역연구소
Nplus Church Community
Since 2009

2015년
춘천 강원지역 교회부흥을 위한

2013 국민일보선정 명품세미나

무료초청
제직훈련 세미나

※ N+교회사역연구소는 2009년부터 1월부터 300회 이상의
교회사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사역단체입니다.

춘천 강원 지역 | 춘천안디옥교회
2월 3일(화) AM 9:40–PM 4:3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76
☎ 033-269-9000
http://www.antiochch.org/

*본 세미나를 통해 **교회에 전도하는 제직,***
***교회를 사랑하는 제직,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제직**이 세워집니다!*

본 세미나에서 다루는 내용

1.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제직 세우기!
2. 한주에 한명 이상 전도하는 제직을 세우기!
3. 4천배의 축복을 받는 제직 세우기!

개최교회	교회부흥의 주역, 제직(임원)!	4천배의 복을 누리는 제직의 비밀	한 주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제직
			
유진형 목사 춘천안디옥교회	**손달익** 목사 서울서문교회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오정호** 장로 서울대광교회 예장통합 증경부총회장	**김인하** 목사 N+교회사역연구소

[참석대상] 2015년 제직, 전도팀, 양육팀, 구역(셀, 속)장, 교사, 교역자부부
<전도대 훈련 및 구역 모임을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참 가 비] **무료** (단, 점심식사를 포함한 교재비 5,000원 별도)
<단, 식사준비 관계로 교재비 입금 확인자에 한하며, 세미나 1일 전까지 사전접수 마감합니다.>
당일 등록은 10,000원(교재, 식사 제공)이며 10인 이상 접수 시에는 꼭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 수] 인터넷 접수 : www.chnplus.net ※인터넷 접수 시 교재비 10% 할인됩니다.
문자 접수 : 010-5751-7667로 교회명, 인원수, 입금자 성함, 참석지역을 남겨주세요.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301-315180 (엔플러스교회사역연구소)

[문 의] 전화접수 : 070-8291-7628

주 최 교회사역연구소 Nplus Church Community | Good (C3TV)

후 원 춘천안디옥교회 | 국민일보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 | 기독공보 | 기독신문 | 기독교신문
기독교타임즈 | 한국도농선교회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015
96주년

3.1절 연합예배

일시 2015. 3. 1 (주일) 저녁 7시30분

장소 석사감리교회 (손학균 목사)



강사
최낙중 목사
해오름교회 담임목사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지용찬 목사
송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손학균 목사
석사감리교회 담임목사

송천기독교연합회